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8일(일) 총 4매		
담당 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 유형문화유산담당 오정근 ☎440-4481 • 담당자 박영준 ☎440-403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등록문화재 제1호 탄생, 송학동 옛 시장관사
-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 ‘수인선 협궤 객차’ , ‘협궤 증기기관차’ 도 등록 -
- 전국 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 등록문화재 등록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9일 ‘송학동 옛 시장관사’ 외 3건을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1호에서 4호로 등록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도 등록문화재(2019. 12. 25.)제도 시행 이후 인천의 역사성, 상징성, 정체성을 대표하는 근현대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50년 이상된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에 4건의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를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하는 시 등록문화재 제1호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 사랑집)’은 1901년 일본인 사업가의 별장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광복 후 서구식 레스토랑, 사교클럽으로 사용되다가 1966년 현존하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민선 초대 최기선 시장까지 17명의 시장이 사용하던 근대주택으로 역사적 의미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번에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제2호로 등록된 ‘자유공원 플라타너스’는 수령이 13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로서 개항기와 인천상륙작전의 포화 속에서도 현재까지 버텨온 자연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선정했다.

제3호로 등록된 ‘수인선 협궤 객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공장인 인천공작장에서 1969년 제작되어 수인선으로 운행되다가 1995년 운행이 중단된 후 2018년 보전처리를 통해 복원된 것으로 인천의 근현대 지역사의 보여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고,

제4호로 등록된 ‘협궤 증기기관차’는 1952년 수원 기관차사무소에서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협궤용 증기기관차로 1978년까지 수인선으로 운행되다가 2008년 보수정비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실제 운행되었던 소래역과 소래철교 인근에 전시되고 있어 소래포구만의 독특하고 지역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가치가 있어 이번에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2019년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이후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문화재 제도 정착에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등록문화재 인식 및 홍보, 등록문화재 제도정비, 등록문화재 추가 발굴 및 등록문화재 활용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붙임 > 사진자료

<붙임> 사진자료

<p>제1호 “송학동 옛 시장관사”</p> 	<p>제2호 “자유공원 플라타너스”</p> 
<p>제3호 “수인선 협궤 객차”</p> 	<p>제4호 “협궤 증기기관차”</p> 

